

佛 教 第 四 十 五 卷

上佐가 되겠다 할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니하더라도  
 不具者이거나 善惡을 不計하고 모다고 말하고 만생과  
 하여一邊本山으로 度牒을 請求한 다 僧籍을 手續한 다 慈  
 願을 發하여 이르나며 或은 衣服, 糧食, 器皿等을 가만  
 히 勸誘하면 그 사람도 갖다 써와야 하고 泰然한 생과  
 으로 動心이 되지 아니하며 누가 無依無托으로 行路의  
 病者가 呻吟한 다 다 하면 아! 업어 다 救療을 하여야 지  
 누가 장가를 갈라 인대 婚需準備가 업당나 다 하면 아! 債  
 務라도 내어서 限二十圓보래 주어야 할 걸하고 即時出債  
 하여 補助하니 그 빚으로 數百圓의 債務을 비술날이 茫然  
 하다. 心性이 이와가 되면 까닭에 누구라도 崇拜하지 안  
 느니는 업는 모양이다 山下洞民은 一週日에 몇번 糧食食  
 을 보래 여 줄지라도 歡喜心으로 待遇하며 和尚이 衆人을  
 取扱하는 까닭에 法律抵觸도 或發生되지 마는 關係官廳  
 은 檢覈정住持는 故意가 아니란 諒解로 畢竟쪽 주머니가  
 되고 말뿐이다 한다. 歲入數百石이 드는 寺院에는 僧數  
 라야 몇백이나 되는 것이 輒輒도 업지 안 된마는 當寺는 在  
 活僧이 원제 안코 歲入이 업는 까닭에 모다 勸諭을 하여야 생  
 다. 또 細流를 가리지 아니하니 그 結果는 大海가 되고 대

海가 되고 보니 大魚가 업지 안 흥과 가라서 智慧를 不擇하  
 니 龍蛇가 混雜되고 龍蛇가 混雜되니 그 眷屬中에는 相當  
 한 資格도 업지 안 라 한다.  
 아! 無我와 平等의 效果는 和尚을 두고 불어 것이 아난  
 가 釋尊께서 羅睺羅外에 한子息을 더 두리 라 생과 하였드  
 면 四生의 總家翁이 되지 못하였슬 어찌오 王宮을 長  
 時로 직히 리라 하였드면 大千界로 都化境을 삼지 못하였  
 슬 어 것이 다. 내가 업는 곳에 眞我가 따라 잇고 내가 업는  
 곳에 大凡業을 成就하고 내가 업는 곳에 如意寶가 隨在이  
 다. 外書에 眞은 말상 「後其身而身先하고 外其身而身  
 在」라 함이 金石의 論이 아니신가 그러나 和尚이 短處가  
 업다고는 생과 어 아니 된다. 自己所有에 蕩無纖塵은 거  
 록하다 하겠스나 三寶常住物까지 奪트려 노코 그 모양으  
 로 지내거나 寺價는 淸淨할 날이 주혀 업고 따라 질 모양도  
 될수 업는 뜻함에 住持資格은 아니라고 酷評을 하느니도  
 잇는 듯하다. 呀! 「終日數他寶에 自無半錢分」이라困  
 하니 잠이나 자고 明朝부러 調查에 着手하자 그만 할 흥과  
 기지개로 黑話鄉에 드러섯다. (未完)

# 退 耕 스 님 개

가 랫

풀에 사지 못해 산으로나 가랏더니  
 님은 산에서 풀로 나려 오시려나  
 그러면 우리갈 곳이 산도 풀도 잇는 데가  
 구름같이 내 마음은 한술로나 떠돌래도  
 다만 바람이 땅에 드지 아니해라  
 한길은 한길은 앞으로 나아가갈 뿐이여라  
 처음 밟어 가는 그 길을 새길 이 밟가  
 몇천만 발자욱이 케케이 쌓였나니

가는 길 다르다 해도 가고 보면 한골이 리  
 치위도 어중도 다 가고 봄새벽이 밝어 온다  
 살따다 들따다 새빛이 들어나고  
 송이든 땅비데 풀도 잠을 깨어 움직인다  
 괴롭계도 기다리든 그봄이 이제야 오니  
 덩굴하든 가슴안도 스스로 풀리려 한다  
 이가슴 님의 손으로 만지면 그일마나 밤가우 리

# 漢 詩

彭 鑑 清

## 詠 菊

其一

歲月如流水 黃花益我思 高懷容世淡 素質入秋宜

堪友冰心客 從聯風露詩 好携籬畔月 不負隔年期

其二

佛 教 第 四 十 五 卷

秋心吟別圃 故石漱寒香 有酒南山近 無家北雁忙